

# 조재호의 자기분열적 코드 : ‘입신출세’와 ‘색동회’

- 해방 전까지 행적을 중심으로 -

김윤정\*

## 〈차 례〉

1. 조재호를 주목하며
2. 상경: 입신출세의 꿈
3. 도일: 동경고등사범학교 생활과 색동회 활동
4. 귀국: 교육관료의 길, 동지의 길
5. 부역: 충실한 조선총독부 학무국시학관
6. 글을 마무리하며

## [국문초록]

조재호는 색동회 창립동인으로서 어린이문화운동가로 활동하는 한편, 학무국시학관이라는 조선총독부 최고의 교육관료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조재호는 1916년 고향인 의령에서 상경해 경성제일고보에 입학했으며, 1921년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관비유학생으로 발탁된다. 1922년 4월 동경사범학교에 입학한 그는 진장섭 등과 함께 조선교육연구회를 조직해 조선의 아동교육을 개혁을 꿈꿨으며 그 실천적 방법으로서 색동회 동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관비유학생이라는 신분은 민족과 출세 사이에서 갈등 인자로 작용한다.

1926년에 귀국한 조재호는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며 입신출세를 향한 이력을 쌓아가는 한편 색동회 활동에도 참여하며 어린이문화운동을 지원했다. 직업인으로서 일상의 영역과 색동회 동인으로서 신념의 영역이 양립했던 이 시기는 그의 삶에서 자기분열적 갈등이 고조되었던 때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1940년 그가 조선총독부의 학무국시학관 자리에 오르면서 해소된다. 학무국시학관이 된 조재호는 대동아공영권과 황국신민화를 세뇌하는 일제의 국민학교 체제를 선전하는 데 앞장섰다. 신념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던

\* 인하대/강사

색동회는 이미 무력해진 터이니 희미해진 민족의 자리는 일제의 제국주의로 쉽게 대체된다. 그렇게 일상과 신념이 통합되는 상황에 이르자 그는 더욱 적극적인 친일협력의 길로 들어선다.

[주제어] 조재호, 자기분열, 입신출세, 색동회, 『어린이』, 일상, 신념, 친일협력

## 1. 조재호를 주목하며

색동회는 1923년 5월 1일, 당시 동경에서 유학하던 이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모임이다. 색동회 동인들은 ‘민족’과 ‘아동’을 중심에 두고 새로운 세상의 주인으로서 ‘어린이’ 꿈꿨으며,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문화운동이라는 실천적 영역을 개척했다. 색동회는 『어린이』를 통한 어린이문화운동 활동에 앞장서며 초창기 아동문학의 장을 일구는 데 일조했다. 따라서 색동회와 그 동인들에 대한 연구는 근대 아동문학의 성립을 구조한 중요한 퍼즐조각이라 할 수 있다.

조재호는 색동회와 관련된 역사적 장면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이다. 1923년 4월 29일에 색동회에 입회한 그는 며칠 뒤인 5월 1일에 진행된 색동회 발회식에 창립회원으로 이름을 올린다. 이후 색동회의 대표적인 사업인 전조선소년지도자대회(1923. 7)와 세계아동예술전람회(1928. 10) 그리고 방정환 사후 진행된 경성보육학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인의 길을 걸었다.<sup>1)</sup> 하지만 조재호에게는 이보다 더 뚜렷한 목적을 남긴 또 다른 삶의 길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관비유학생으로 시작해 각종 요직을 거쳐 조선총독부 학무국시학관의 자리에 오른 친일 교육관료의 길이였다. 모든 관비유학생이 친일의 길로 나아간 것은 아니므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시학관에 오른 그의 전력에 대해 변명의 말은 마땅히 없어 보인다. 다만 그가 조선총독부의 교육관료로서 출세가도를 달리는 동안에도 여전히 색동회 동인으로서 활동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가 아동문학사에 남긴 유산에 대한 이해는 색동회 동인이자 조선총독부 학무국시학관으

1) 정인섭, 「보모 양성과 경성보육학교」, 『색동회 어린이 운동사』, 증보판, 휘문출판사, 1981, 122쪽.

로 대표되는 자기분열적 상황에 대한 접근을 유보하고서는 온당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조재호에 대한 연구는 박길수의 「어린이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소고-색동회 창립 동인 강영호·조재호를 중심으로」가 유일하다.<sup>2)</sup> 색동회 동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재호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이유로는 그가 아동문학과 교육계에 걸쳐진 인물이라는 점과 색동회에 대한 연구부진을 꼽을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박길수의 논문은 조재호가 색동회 창립 동인이며 어린이운동에 참여한 사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교육계에 쌓은 업적을 들어서 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는 데 힘을 주고 있다. 실제 그간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방대한 자료들을 모아 조재호의 생애와 작품 연보를 구성함으로써 기초자료 확보라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조재호와 색동회 관련사는 비중 있게 다룬 반면 일제 말 그의 친일행적과 해당 자료들은 누락되어 있는 터라 자료보완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우선 선행연구가 수행한 기초자료를 보완하되, 특히 누락된 친일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또 일제강점기 조재호에게서 발견되는 두 가지 정체성 즉 조선총독부의 교육관료와 색동회 동인으로서 그의 행적을 펼쳐놓고 살펴보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조재호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민족과 개인의 입신출세라는 두 갈래의 길에서 횡보하던 지식인 조재호의 면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그 노정에서 색동회가 갖는 의미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상경: 입신출세의 꿈

조재호는 1902년 9월 1일에 창녕 조씨 집성촌인 경남 의령군 화정면 삼정

2) 박길수, 「어린이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소고 - 색동회 창립 동인 강영호·조재호를 중심으로」, 제96회 어린이날 기념 색동학술포럼 자료집, 방정환연구소, 2018, 5.

리에서 아버지 조복환(曹復煥)과 어머니 이승순(李承順) 사이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조재호의 호는 양헌(養軒)이며,<sup>3)</sup> 별호는 벽화산인(壁華山人),<sup>4)</sup> 자호(自號)는 AMO(啞貌)이다. 그의 가족은 조재호가 6세가 되던 1907년에 경남 사천군 유동면 갈평리로 이사하였으며, 그곳에서 성장한 조재호는 1916년 3월 경남사천 소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다.<sup>5)</sup> 조재호의 회고에 따르면 가족과 학교 인사들은 그가 부산에 있는 상업학교나 진주에 있는 농업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랐으나 그 자신은 인문계인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결국 그는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홀로 상경해 1916년 경성제일고보(京城第一高普) 입학에 성공한다.

경성제일고보에서 조재호가 만난 최고의 인연은 윤극영이었다.<sup>6)</sup> 조재호는 윤극영의 집에 드나들기도 했는데, 하루는 조재호가 윤극영 집에 방문했을 때 윤극영의 아버지와 마주친 적이 있었다. 윤극영의 아버지가 타향살이의 고단함을 위로하자 조재호는 “어떤 고생이라고 참고 성공할 테예요!”라고 말했다고 한다.<sup>7)</sup> 윤극영의 기억에 의지한 회고담이라 발언의 정확성은 불분명할 테지만 그 진위만큼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시골 촌담이라 불리던 가난한 경성 유학생에게 있어서 입신출세는 기어이 도달하고픈 하나의 꿈이었을 터이기 때문이다.

조재호의 경성제일고보 생활은 사범과를 선택하기 전과 후로 그 사정이 달라진다. 당시 경성제일고보를 졸업한 사람은 면장, 군서기뿐만 아니라 군수 자리까지도 넘볼 수 있을 만큼 출세를 보장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조재호는 사범과를 선택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그는 어쩐지 교원에 마음이 끌렸다고 말하면서 막연하게나마 그것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사범과 학생이 되면

3) 경성제일고보 사범과 은사인 여규형(呂圭亨)이 맹자의 한 구절인 “養浩然之氣”에서 따와 지어준 호이다. 조재호, 『양헌집』, 서울교육대학, 1968, 5쪽.

4) 조재호의 아버지가 경남 宣寧 上井에 있는 벽화산(壁華山) 밑에서 났다고 하여 벽화산인(壁華山人)이라는 별호를 지어주었다. 조재호, 위의 책, 같은 곳.

5) 박길수, 앞의 글, 56쪽.

6) 윤극영은 진장섭과 더불어 조재호가 색동회와 인연을 맺는 데 있어서 가교 역할을 한 인물이다.

7) 윤극영, 「友情에 부친다」, 조재호, 『양헌집』, 서울교육대학, 1968, 19~21쪽.

월사금을 면제 받을 뿐만 아니라 의식주를 보장해주고 학용품을 구입할 비용까지 지급해주었다고 하니 그로서는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sup>8)</sup> 조재호는 사범과 학생이 됨으로써 생활의 여유와 함께 자신의 장래에 대한 청사진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교원의 꿈을 품은 조재호는 마침내 1921년 3월 경성제일고보 사범과를 수석으로 졸업하면 서<sup>9)</sup> 조선총독부의 관비유학생으로 발탁된다.<sup>10)</sup>

당초 경성제일고보 측에서는 조재호에게 동경제국대(東京帝國大) 농과(農科) 대학부설실과(大學附設實科) 교원양성소에 진학해 농업과 교원이 될 것을 권했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재호는 학교 측에서 동경고등사범학교(東京高等師範學校) 문과로 보내기에는 자신의 성격과 사상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조재호는 동경고등사범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면 일본 유학마저 포기하겠다고 학교 측과 대립했다고 한다. 결국 그는 학교를 정하지 않은 채 일단 도일(渡日)을 감행했으며, 동경에 도착한 뒤에는 자신의 뜻대로 동경고등사범학교 입학에 위한 준비와 절차를 스스로 알아보았다.<sup>11)</sup> 일 년여의 노력 끝에 마침내 그는 1922년 동경고등사범학교 문과 입학에 성공한다. 가난한 수재였던 조재호는 관비유학생의 신분을 얻게 되며 일본 유학이라는 엘리트 코스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 3. 도일: 동경고등사범학교 생활과 색동회 활동

#### 1) 조선교육연구회 활동과 색동회 동인 참여기

조재호는 굳은 결심을 하고 1921년 동경으로 건너갔지만 곧바로 동경고

8) 조재호, 「교육정신 40년: 갈채 속의 이력서」, 『세대』 제6권 통권 58호, 세대사, 1968. 5, 271~272쪽.

9) 「高普校卒業式」, 『동아일보』, 1921년 3월 18일.

10) 「官費留學 決定」, 『매일신보』, 1921년 4월 7일.

11) 조재호, 앞의 글, 273쪽.

등사범학교에 입학할 수는 없었다. 일제가 조선에 제공한 수준 낮은 교육 탓에 경성제일고보 사범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음에도 일본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만큼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절치부심 끝에 그는 1922년 4월에 동경고등사범학교 문과 제1부 2조에 입학하게 된다. 문과 제1부 2조는 법제, 경제, 윤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조재호는 특히 교육 과목에 흥미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심리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sup>12)</sup>

동경고등사범학교 입학을 두고 겪었던 일련의 경험들은 조재호가 조선의 교육현실을 자각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조선에서는 수재로 인정받았던 자신이 일본학생과의 경쟁에서 실력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은 그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조재호는 그때의 심정을 “우리 한국의 교육제도와 교육 내용에 관하여 그 제도가 불비하였고 학문적으로 향상할 수 없이 길이 막혀 있다는 점과 교육내용에 관하여는 간이하고 실용적인 일본의 심부름을 하기에 알맞는 내용과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게 되자 심히 분통하였고 반발심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sup>13)</sup>

조선의 수준 낮은 교육현실에 대해 조재호가 품었던 울분은 그 시기 재일본 유학생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던 자유주의적 문화운동과 맥락적으로 닿아있었다.<sup>14)</sup> 자유주의적 문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교육은 개인의 인격을 개조함으로써 우리민족의 사회개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으로서 중요한 의제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23년 6월, 당시 동경고등사범학교 학생이었던 진장섭(秦長燮)과 조재호 등은 재일본 조선교육연구회를 조직한다.<sup>15)</sup> 진장섭은 조재호와는 동경사범고등학교 입학동기생으로 영문과에서 수학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학교 내 유일한 조선인으로 예과(豫科) 일 년 동안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며 친분을 쌓은 터였다. 조선교육연구회

12) 위의 글, 273~274쪽.

13) 위의 글, 274쪽.

14) 장인모, 「1920년대 재일본조선교육연구회의 활동과 교육 논의」, 『한국교육사학』 제36권 제2호, 한국교육사학회, 2014. 6, 34~35쪽; 정미량, 「1920년대 재일조선유학생의 문화운동: 개인과 민족, 그 융합과 분열의 경계」, 지식산업사, 2012, 173~284면, 287~289쪽.

15) 「將來의 教育家로 教育연구회 조직」, 『동아일보』, 1923년 6월 10일.

의 조직에 대해 진장섭은 고국의 교육자가 될 동지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일제의 감시를 피하되 최종적으로는 우리교육을 개혁·진흥시킬 방법을 연구하자는 데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sup>16)</sup>

조재호는 조선교육연구회가 발행한 『교육연구』 창간호(1926.1)에 「현대 교육사조의 특질」이라는 글을 게재한다. 이 글에 대해 선행연구자 장인모는 현대 교육사조의 흐름을 개관하며 최종적으로 문화교육학으로의 종합을 꾀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sup>17)</sup> 또 연구자 김성학은 조재호가 「현대 교육사조의 특질」에서 존 듀이(John Dewey)의 저서인 『인간본성과 행위』(Human nature and conducts, 1922)와 『교육의 의미』(Meaning of education) 중 일부분을 영어 원문 그대로 인용했다는 점을 주목하기도 했다. 김성학에 따르면 존 듀이는 1919년 『選民』 제1호에 실린 필자미상의 글인 「10년 이래 구주 교육계의 신운동」에서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한 적이 있으나, 존 듀이의 글을 직접 인용해 소개한 것으로는 조재호가 처음이라는 것이다.<sup>18)</sup> 조재호가 존 듀이의 글을 원문으로 접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1919년에 그가 일본에 방문한 사실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존 듀이는 일본에 머물 당시 도쿄제국대학에서 민주주의, 프래그머티즘 등의 주제로 총8회에 걸쳐 강연을 했으며 다수의 교육자들로부터 반향을 얻었다고 한다.<sup>19)</sup> 이러한 배경 아래 존 듀이의 철학과 저서들이 일본의 교육계에 전파되었을 터이니 조재호 또한 자연스럽게 그의 저서를 얻어 탐독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sup>20)</sup>

진장섭과 조재호가 조선교육연구회를 조직한 1923년 6월 상순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색동회 발회식을 마치고 전조선소년지도자대회를 기획하고 있었던 때였다. 조재호는 1923년 4월 29일에 색동회에 입회하여 창립동인으

16) 진장섭, 「인왕산 호랑이 曹在浩 學長 - 한 同志로서 본 人間 曹在浩」, 조재호, 『양현집』, 서울교육대학, 1968, 32쪽.

17) 조재호의 「현대 교육사조의 특질」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장인모의 앞의 글 참조.  
18) 김성학, 앞의 글, 9쪽.

19) 존 듀이, 『민주주의와 교육/철학의 개조』, 김성숙·이귀학 옮김, 동서문화사, 1980, 562~564쪽.

20) 존 듀이에 대한 연구는 해방 후인 1946년에 오천석이 『민주주의의 교육과 건설』이라는 저서를 출판하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조재호가 1926년에 이미 존 듀이의 저서 중 일부분을 원문으로 자기 글에 인용했다는 사실은 존 듀이의 연구사를 완성하는 데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로 이름을 올린 터였다.<sup>21)</sup> 조재호가 색동회에 입회하는 데 있어서 가교 역할을 한 첫 번째 인물은 윤극영이었다. 윤극영은 1921년에 이미 일본으로 건너와 도쿄음악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었다.<sup>22)</sup> 일본에서 다시 재회한 윤극영과 조재호는 한동안 독학부(督學部)에서 함께 유숙하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보인다.<sup>23)</sup> 그러다가 윤극영은 홀로 고단사(高丹寺) 근처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그때 방정환이 그를 찾아와 소년운동과 아동문제 관련 조직에 대한 구상을 얘기했다고 한다.<sup>24)</sup> 윤극영은 동화·동요·동극과 같은 예술중심의 어린이문화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교육 또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영역임을 생각하며 조재호를 떠올렸다고 한다.<sup>25)</sup> 이에 따라 윤극영이 조재호를 추천했을 것이고 마침 조재호의 동경고등사범학교 동기생인 진장섭 또한 색동회 첫 모임부터 함께하고 있는 터였으니 조재호의 입회는 쉽사리 성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26)</sup>

색동회 동인들은 1923년 5월 18일, 방정환의 집에서 가진 모임에서 전조선소년지도자대회를 구상한다. 시기적으로는 여름방학을 염두에 두고 대회의 순서와 담당과목을 결정하는데, 이때 조재호는 ‘아동교육과 소년회’라는 주제를 담당하기로 한다.<sup>27)</sup> 실제 전조선소년지도자대회는 1923년 7.23~29까지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어린이』는 1923년 9월에 전조선소년지도자대회 기념호(제1권 8호)를 발행하여 그날의 감격을 전했다. 기록에 의하면 조재호는 제2일차에 ‘아동교육과 소년회’라는 주제 아래 ‘교육의 근본의의’, ‘현대학교 교육 상태와 그 결점’에 대해 강연하고 야간자유토의

21) 당시 조재호를 추천한 인물은 윤극영·진장섭·고한승이었다. 정인섭, 앞의 책, 45쪽.

22) 윤극영은 1921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중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음악학교(東洋音樂學校)(이후 도쿄음악학교(東京音樂學校)로 개칭)에서 성악과 바이올린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윤극영, 「友情에 부친다」, 조재호, 『양현집』, 서울교육대학, 1968, 21쪽.

24) 윤극영, 위의 글, 23쪽; 정인섭, 앞의 책, 41~42쪽.

25) 윤극영, 위의 글, 23~24쪽.

26) 조재호, 앞의 글, 275쪽. 이 글에서 조재호는 1923년 본과 1년이 되었던 당시 어느 날 윤극영과 진장섭이 찾아와 방정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방문하자고하기에 동행한 일이 있었다고 회고한다.

27) 정인섭, 앞의 책, 59~60쪽. 전조선소년지도자대회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는 손증상, 「전조선소년지도자대회와 『어린이』 기념호 발행에 대한 연구 - 색동회와 『어린이』의 미디어 의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헌회』 제97호, 현대문학이론헌회, 2024를 참조.

에서는 '소년운동과 소년회'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sup>28)</sup> 전조선소년지도자 대회는 아동문학과 소년운동에 방점을 찍은 행사였지만 한편으로는 재일본 유학생들이 결성한 아동문제연구회인 색동회와 동인들의 전문성을 국내에 알리는 통로가 되기도 했다. 전조선소년지도자대회에 대해 색동회 내부적으로 '제1회 아동문제 강연회 겸 아동예술 강습회'라는 의의를 부여하고 있으며,<sup>29)</sup> 조재호 개인에게 있어서는 아동교육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전조선소년지도자대회를 통해 색동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동인들은 마크 제정의 필요를 느꼈다. 그들은 '씩씩하고 참된 어린이가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라는 색동회의 정신을 담은 마크를 각자 도안해보기로 하였으니, 최종적으로 조재호가 제시한 도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다.<sup>30)</sup> 색동회 마크를 도안하는 데 있어서 조재호가 무엇보다 염두에 둔 사안은 어린이를 구심점으로 의기투합한 색동회 동인들의 마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홍빛'으로 채색된 '심장'은 어린이를 위한 색동회 동인들의 '정열'적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어린이를 잘 키우고 잘 가르쳐 보겠다'는 그들의 뜨거운 마음이라 할 수 있다. 태극문양을 한 계란 모양의 병아리로 형상화된 어린이는 그들의 이상과 희망이 반영된 존재로 장차 '씩씩하자 · 참되자 · 사랑하고 서로 도우자'고 외치며 탄생할 민족의 아이들이었다. 또 민족을 상징하는 태극문양에 어린이 이미지를 겹치게 그려둔 것은 그들이 어린이의 탄생과 조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상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재일본 유학생으로 구성된 최초의 아동문제연구 단체라는 자부심과 20대 흥안의 청년들이 나뉘을 동지의식, 식민지로 떨어진 조국에 대한 고뇌 그리고 조국의 어린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내겠다는 열정 등 색동회 마크에는 색동회 동인들의 신념을 그대로 투사되어 있었다.

28) 『조선일보』, 1923년 6월 13일.

29) 정인섭, 앞의 책, 60쪽.

30) 색동회 마크 도안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인섭, 위의 책, 69~70쪽 참조.

## 2) 조선총독부 관비유학생이라는 신분

관비유학을 통한 동경고등사범학교 입학은 조재호에게 있어서 인생의 향방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 하나는 향후 조선총독부의 교육관료로 나아가는 입신출세의 길에 들어선 것이요, 다른 하나는 색동회 동인으로서 어린이문화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갈래의 길은 그의 인생에서 반민족과 민족이라는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하지만 식민지로 떨어져버린 조국에 대한 분통함과 지식인으로서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사명감이 그 첫 마음이었음은 분명하다.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유학생들은 내면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정종현은 그들이 “식민지(인)/제국(엘리트)’의 사이에서, ‘출세’와 ‘지사’ 사이에서, ‘일본인화의 과정’과 ‘조선인 된 슬픔’ 사이에서 분열했다고 말한다.<sup>31)</sup> ‘출세’와 ‘지사’, ‘친일’과 ‘저항’, 완전히 다른 지향점을 가진 욕망이 그들의 내면에 공존하며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일본 장학생이라 불리는 관비유학생의 처지라면 어떠했을까. 가난한 수재들에게 관비유학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다. 하지만 관비유학이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식민지 경영을 위한 친일인재양성이라는 뚜렷한 목표 아래 진행·관리되는 상황에서 가난한 수재들의 꿈은 대개 친일과 밀착한 형태로 실현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 역시 그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지는 않았을 터, 관비유학생 신분인 조재호는 친일과 한 발짝 더 가까운 자리에서 깊이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진장섭이 남긴 회고의 한 대목은 당시 재일 유학생들의 심경과 고뇌를 짐작하게 한다. 진장섭은 동경고등사범학교 당시 자신과 어울렸던 조재호와 공진항(孔鎭恒)<sup>32)</sup>을 거론하며 세 사람이 가졌던 사적모임에 대해 다음과

31) 정종현, 『제국대학의 조센징』, 휴머니스트, 2019, 18쪽.

32) 진장섭은 공진환(孔鎭桓)으로 한자표기를 하고 있으나 올바른 이름표기는 공진항((孔鎭恒)이다. 공진항의 본명은 공탁(孔灌). 개성 출생 일본 와세다대학 영문과(1924), 런던대학 철학과 2년(1928), 프랑스 소르본대학 사회학과(1930) 졸업. 이동초 글·개벽라기비움 동학천도교인명사전연구회 기획, 『동학천도교인명사전』 제2권, 모시는사람들, 2019.

같이 기술하고 있다.

모일 때마다 반드시 술을 마셨고 셋이서 그러 안고 함께 영영 울고야 마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은 아니다. 셋이서 얼근해 가지고는 반드시 토론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의제(議題)는 물론 모국(母國)의 장래이다. (중략) 우선 우리는 생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조국에 대한 정열을 그대로 지닐 수 있다고 말했고孔은 인생으로의 懊惱를 좀더 체험하면서 근실 력행(勤實力行)해야 한다고 했고 曷는 于先 信仰에 가까운 信念을 가져야 조국에 대한 정열도 굳어진다고 말한 것 같이 생각된다.<sup>33)</sup>

식민국에서 유학하는 피식민 국가의 젊은이들이 가졌을 '망한 조국'과 '망국민 됨'에 대한 감정은 단순한 울분에 그치지 않고 조국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겠다는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행보에 대해 고민하게 했다. 하지만 조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방법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력양성론은 여전한 딜레마였으며, 재일 유학생 신분으로 점차 일본인화 되어 가는 스스로에 대한 자각은 차마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갈등을 유발했을 것이다. 그런 이유인지 조국의 장래를 의제로 삼아 얘기하면서 조재호가 '신앙에 가까운 신념'을 가져야만 조국에 대한 열정도 굳어진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어쩐지 그만의 복잡한 심경이 느껴진다. 본인이 일제의 친일세력 육성정책의 일환인 관비유학생 신분이었으니 조국의 미래와 자신의 행보에 대해 누구보다 더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터이다.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관비유학생의 취직은 원칙적으로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곳에만 가능했다.<sup>34)</sup> 조재호의 경우에도 본인은 고향에 새로 생기는 진주일신여학교(晋州一新女學校)에 취직하고자 했으나, 관비유학생으로서의 의무에 따라 경성사범학교에 취직해 여자연습과 교육을 담당하게 된

33) 진장섭, 「인왕산 호랑이 曹在浩 學長 - 한 同志로서 본 人間 曹在浩 -」, 『양현집』, 서울교육대학, 1968, 33~34쪽.

34) 김광규, 「일제하 고등사범학교 유학생의 구성과 교직 진출」, 『역사연구』 제47호, 역사학연구소, 2023.5, 240쪽.

다. 그때가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1926년 4월이었으며, 조선인 으로서는 처음으로 발령받은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중등교원은 사회적으로 명예로운 지위를 누리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족하지 않은 엘리트 직업이었다.<sup>35)</sup> 이제 막 입신출세의 가도에 오른 가난한 수재 조재호의 꿈은 추후 조선총독부 시학관이라는 요직에 오르며 완성될 터였다.

지금의 자리에서 조선총독부의 돈을 받아 공부한 이들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 손쉬운 일이라는 말에 수긍한다. 가난한 수재들에게 관비유학은 꿈을 잡을 수 있는 기회였을 터이므로, 그 누구라도 쉽게 포기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비유학 자체를 문제 삼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이 관비유학을 통해 얻은 지식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 또 어떤 길을 인생의 향로로 잡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sup>36)</sup> 조재호에게 있어서 ‘출세’와 ‘지사’로 나아가는 두 갈래의 길은 상당기간 나란한 상태였다. 그는 조선총독부 교육관료로서 출세가도를 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색동회를 통해 아동문학과 연결된 끈을 붙들고 있었다.

#### 4. 귀국: 교육관료의 길, 동지의 길

##### 1) 조선총독부 교육관료의 길

1926년 2월 조재호는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sup>37)</sup> 경성사범학교 여자연습과에 배치된다. 조재호가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식민지 인재양성 기관인 경성사범학교 교사로 낙점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신이 매우 우수한 인재로 인정받았기 때문일 터인데, 이는 달리 생각해보면 그

35) 김광규, 위의 글, 216쪽.

36) 정종현, 앞의 책, 85~86쪽. 이는 관비 유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친일파가 된 것은 아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우장춘 박사, 최초의 이학박사 이태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 윤일선, 국어학자 최현배는 관비로 일본에 유학했음에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인물들이다.

37) 「동경유학생 백삼십여 졸업」, 『동아일보』, 1926년 2월 18일.

의 행실과 사상이 일제가 요구한 바에 부합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재호는 경성사범학교 여자연습과 교사(1926.4~1935.3), 경성여자사범학교 교사(1935.4~1940.5)로 근무하며 일제의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일선에 있었다. 이 시기 그의 행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조선초등교육연구회와 그 기관지인 『조선의 교육연구』에서의 집필 활동이다.

조선초등교육연구회는 경성사범학교 및 부속학교 교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조직으로, 조선의 초등교육과 제반사항을 조사·연구하고 발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초등교육연구회는 1928년 4월에 『조선의 교육연구 朝鮮の教育研究』를 창간하여 초등교과목 교재에 관한 연구, 새로운 교수법의 개발 및 수업지도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조선초등교육연구회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의 교육방법과 실천을 연구하고 교수 방법을 초등 교원에게 전달하는 단체였던 것이다.<sup>38)</sup> 조재호는 『조선의 교육연구』에 1928년 6월부터 1935년 3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글을 기고했으며, 그 목록은 [표1]과 같다. 목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글이 교사에게 요구되는 학급경영 능력, 수업운영 및 학생평가, 학생지도와 같은 매우 실무적인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조선의 교육연구』 집필 목록

권호(연월)	제목
제2호(1928.6.)	生命を如何に觀るべきか
제3호(1928.8.)	夏休みらしく生活しめよ
제5호(1929.1.)	修身指導法について
제6호(1929.2.)	新入 兒童の 知能檢査について
제2권 1호(1929.4.)	普通學校 第4學年の 學級經營
제2권 3호(1929.6.)	修身科の成績考査について
제2권 4호(1929.7.)	夏休に於ける兒童の生活指導

38) 김봉석, 『朝鮮の教育研究』를 통해 본 일제시대 초등역사수업의 실제 양상, 『사회과학교육연구』 제19권 제2호, 사회과학교육학회, 2012, 3~5쪽. 『조선의 교육연구』는 1928년 4월 경성사범학교 교우회 기관지(월간)로 창간되었다가 1934년부터는 조선초등교육연구회가 발간하게 된다. 전시 체제 하인 1941년 조선초등교육연구회가 국민교육연구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1941년 1월부터는 『국민교육』으로 제호를 변경해서 7호를 더 발행한다. 14년간 총 155편이 발행.

제2권 7호(1929.10.)	職業指導に關する心理的一考察
제2권 8호(1929.11.)	藝術教育の本質とその將來
	軍浦場に於ける卒業生指導を見て
제2권 9호(1929.12.)	修身の學習過程と指導様式
제2권 10호(1930.1.)	現代世相と修身教育
제3권 1호(1930.4.)	教育の合理化について
제3권 2호(1930.5.)	個性診斷法
제3권 4호(1930.7.)	個性診斷法(承前)
제4권 2호(1931.2.)	家事及裁縫科の學習過程と指導方法
제4권 3호(1931.3.)	操行考查法に就いて
제4권 4호(1931.4.)	教育合理化の意味を究め學級經營の實際問題に及ぶ
제4권 5호(1931.5.)	個性診斷錄
제4권 6호(1931.6.)	學級經營に於ける環境施設の實際
제4권 7호(1931.7.)	成績考查法について
제4권 8호(1931.8.)	復習所に就いて
제4권 9호(1931.9.)	學習態度と指導態度
제4권 10호(1931.10.)	生命力と教育
제5권 1호(1932.1.)	修身科と公民教育
제5권 3호(1932.3.)	卒業生指導について
제5권 4호(1932.4.)	現代教育思潮の動向
제54호(1933.3.)	助成態度について
제61호(1933.10.)	人間の姿と人格の核心
제66호(1934.3.)	學級經營を語る
제71호(1934.8.)	助成態度の再考察
제78호(1935.3.)	再び藝術教育を語る
제83호(1935.8.)	夏休みをいかにすべきか

조재호는 경성사범학교 훈도로 재직 중이던 1928년 11월 16일에 쇼와(昭和)천황 즉위를 기념하는 대례기념장(大禮記念章)을 받는다. 1926년에 즉위한 쇼와 천황은 1928년 11월 10일에 즉위식을 거행하며 쇼와 대례기념장을 제정했다. 쇼와 대례기념장의 수여대상은 천황의 즉위식에 초대된 외교 사절 및 고위급 인사들, 각 소재지에서 진행된 즉위식 기념 연회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받은 사람들, 또 천황의 즉위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업무나 실무를 맡았던 사람들이었다.<sup>39)</sup> 조재호의 경우는 조선에서 열린 쇼와

천황의 즉위를 기념한 연찬에 조선총독부 산하 경성사범학교 교사 신분으로 참석함으로써 대례기념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선총독부의 관보에 따르면 당시 조선에서 쇼와 대례기념장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조선총독부 산하의 기관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학교의 교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조재호가 재직 중이던 경성사범학교에서는 총 25명이 기념장을 받았으며 조재호는 그 중 유일한 조선인이었다.<sup>40)</sup>

## 2) 색동회와 『어린이』 활동

앞서 거론했듯 조재호를 가리키는 관비유학생이라는 신분은 이후 그가 관비유학을 통해 얻은 지식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 따져 묻게 한다. 이때 색동회 활동은 그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 될 수 있다. 조재호의 색동회 활동은 전조선소년지도자대회의 강연자, 세계예술아동박람회의 조력자, 경성보육학교에 시간강사로 참여 그리고 『어린이』의 훈화 집필 담당자로 설명할 수 있다.

1928년 『어린이』는 『동아일보』의 후원을 받아 세계아동예술전람회라는 대규모의 예술행사를 진행한다. 방정환을 비롯한 색동회 동인들은 당시 경남 일대를 순회하며 세계 각국의 어린이 그림을 전시하고 있던 이현구 등과 협력해 일을 도모했다.<sup>41)</sup> 1928년 8월 중인 어느 날 색동회 동인인 방정환, 조재호, 정순철, 진장섭, 정인섭은 이현구, 김광섭과 만나 전람회를 위한 협의에 임한다. 이 자리에서 세계아동예술전람회라는 행사 명칭이 결정되었으

39) '昭和三年勅令第百八十八号 (大禮記念章制定ノ件) (昭和三年勅令第百八十八号)', e-gov 法令檢索, <<https://laws.e-gov.go.jp/law/303IO0000000188>>(2024. 11. 11)

40) 『조선총독부 관보』 제924호 부록, 1930. 2. 3, 7쪽.  
<[http://viewer.nl.go.kr:8080/gwanbo/viewer.jsp?pageId=GB\\_19300203\\_CC0001\\_001#](http://viewer.nl.go.kr:8080/gwanbo/viewer.jsp?pageId=GB_19300203_CC0001_001#)>(2024. 10. 8)

41) 세계아동예술전람회의 성공적 개최에는 이현구의 공헌이 컸다할 수 있다. 이현구는 일본의 동요작가 사이조야소(西條八十), 아오야마(青山) 유치원 원장, 일본 서화협회(日本童畫協會) 타케이타게오(武井武雄)의 도움을 받아 세계 각국의 어린이 그림 1천 점을 모아 귀국해, 정인섭·김광섭(와세다대학 영문과)과 함께 7월 16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경남 일대를 순회하며 전시하고 있었다.

며, 이헌구는 색동회 동인으로 추천되었다.<sup>42)</sup> 『어린이』와 색동회, 해외문화 파인 이헌구 등과의 결합으로 성사된 세계아동예술전람회는 1928년 10월 2일부터 8일까지 경운동에 위치한 천도교회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선행연구자인 조은숙은 세계아동예술전람회의 의의에 대해 “1920년대 천도교 어린이 문화 운동 그룹이 아동예술을 매개로 세계와 교섭하며 세계일가의 이념을 구축하고자 한 실천 과정을 보여주며, 근대 아동예술의 이념을 널리 확산시켰다는 점”이라 말하고 있다.<sup>43)</sup> 조재호는 색동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아동예술전람회의 준비와 진행에 참여하며 행사의 성공에 일조한다.<sup>44)</sup>

방정환 사망(1931. 7. 23) 후 색동회 활동은 다소 동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색동회 동인들의 관심을 끈 새로운 일이 있었으니 바로 보모교육이었다. 그 즈음 색동회 동인으로 입회한 최진순이 유일선 목사가 운영하다가 경영난에 빠진 경성보육학교(京城保育學校)를 인수(1932년 10월 경)하면서 색동회 동인들이 힘을 모으게 된 것이다. 경성보육학교는 유치원 보모를 양성하는 2년제 사범전문학교였다. 학교를 인수한 최진순이 교장 자리에 앉고, 당시 일본유학에서 돌아와 직업을 얻지 못하고 있던 이헌구가 교감을 맡게 되었다. 전임교원으로는 최영주(최신복)가 채용되었으며, 조재호는 정순철, 정인섭 등과 시간강사로 출강하며 운영에 협력했다.<sup>45)</sup> 이헌구는 당시 일을 회고하며 공직자 조재호가 시간을 내어 작은 사립학교에 출강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다.<sup>46)</sup> 그도 그럴 것이 이헌구가 경성보육학교에 자리를 소개받으면서 제안 받은 월급은 30원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월급이 6~70원이었다고 하니 그 당시 경성보육학교의 규모와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했음을 알 수 있다.<sup>47)</sup> 이헌

42) 정인섭, 앞의 책, 101~102쪽.; 109쪽. 세계아동예술전람회 준비를 위한 예비 만남 날짜에 대해서는 서로 기억이 엇갈린다. 정인섭은 8월 2일(101쪽)으로 이헌구는 8월 20일(109쪽)로 기억하고 있다.

43) 조은숙, 「세계아동예술전람회(1928)를 통해 본 아동예술의 이념과 세계 표상의 기획」, 『인문사회 21』 제7권 6호, 인문사회21, 2016, 734쪽.

44) 조재호는 설비부의 일원으로 참여해 세계아동예술전람회를 준비에 힘을 보탤다. 「일주일 밖에 안 남은 세계아동예술전」, 『동아일보』, 1928년 9월 25일.

45) 정인섭, 위의 책, 122쪽.

46) 이헌구, 「正義의 사랑의 使徒」, 조재호, 앞의 책, 37~38쪽.

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작은 학교에 경성사범학교의 교사인 조재호가 출강을 해주었으니 그 고마운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재호의 색동회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어린이』에 집필자로 참여한 이력이다. 『어린이』 지면은 아동의 주체적 성장을 도우려는 그들의 이상을 표현하고 실현을 꾀할 수 있는 매개로서 중요한 공간이었다. 이에 따라 색동회 동인들은 아동문제와 아동예술에 있어서 자신의 전문분야를 찾아 『어린이』의 필자로 참여했다. 조재호는 교육자로서 『어린이』에 주로 교육성이 짙은 훈화들을 기고했으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2] 『어린이』에 게재된 조재호 글 목록

권호(연월)	글 종류(원문)	제목	쪽
3권 5호(1925.5.1.)	훈화	어린이데-선물	2~4
4권 1호(1926.1.1.)	훈화	인왕산 호랑이의 대연설	2~3
4권 10호(1926.11.15.)	훈화	우서라!	2~3
5권 5호(1927.6.1.)	연작소설	5인 동무-제3회 타관의 고생사리	46~49
6권 7호(1928.12.20.)	동화	욕심쟁이와 꿈	26~27
7권 1호(1929.1.20.)	훈화	1. 사람과 짐승	46~47
7권 6호(1929.7.20.)	방학독물	방학 중의 시간생활	2~3
7권 7호(1929.8.20.)		가을 중 일요일에 무엇을 할가-제1강-	40~43
8권 3호(1930.3.20.)		나는 요사이 서울서 제일이라는 유치원 구경을	5
9권 6호(1931.7.20.)	하기특집	하기 방학을 당한 전국소학생들께-로봇트(人造人間)과 사람(人間)	2~4
10권 3호(1932.3.20.)	졸업생 문제특집	졸업은 한다마는-배우지 못한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배운 어린이에게-	6~7
10권 10호(1932.10.20.)	名話	한거를 앞서라	6~7
10권 11호(1932.11.20.)	各話 <sup>48)</sup>	희망을 가지라	6~7
10권 12호(1932.12.20.)	부탁	힘을 다하자	6~7
12권 1호(1934.1.)	신년호 축하	입 벌리고 다니지 마라	8
12권 3호(1934.3.20.)	기념호 축하	기쁜 열한 돌 (첫째 손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알맞게 먹읍시다. ~)	12~13
13권 1호(1935.3.1.)	훈화	희망 조재호(寫)	10~11

47) 이현구, 『미명을 가는 길손』, 서문당, 1973, 346쪽.

48) '名話'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조재호는 『어린이』 1925년 5월(3권5호) 어린이날 기념호에 「어린이대선물」라는 글을 실으며 처음으로 『어린이』 지면에 등장한다. 이 글을 쓸 당시 조재호는 동경고등사범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색동회 동인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조국의 아동교육에 열정을 가진 때였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 글은 어린이문화운동가로 첫발을 댄 젊은 교육자가 가질 법한 어린이를 향한 순수한 애정과 기대의 표현들로 충만하다. 그는 먼저 어린이를 ‘새 조선의 일꾼’ ‘새 세상의 주인공’이 될 인물로 호명한 뒤, 그러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질로서 ‘생생한 기운’과 ‘따뜻한 마음’을 거론한다. 장차 ‘이 세계의 장래 주인공’이 될 “우리 어린이들은 씩씩한 기상과 고혼 심정과 쾌활하고도 부지런한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여” 부모세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조재호는 진심으로 어린이를 새 세상의 주인공으로 대우하고 있다. 마침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쓰는 글이기도 하니 그 내용은 훈화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어린이를 축복하는 글처럼 읽히는 면도 없지 않다. 그런 이유인지 글의 말미에서 “아-나의 못 니저운 조선 어린이여!”라는 그의 외침은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

조재호는 『어린이』에 모두 17편의 글을 게재했다. 그 중 연작소설인 「5인 동무-제3회 타관의 고생사리」(5권5호, 1927.6.1)와 동화 「욕심쟁이와 꿈」(6권7호, 1928.12.20)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훈화의 성격이 강한 글들이다. 조재호에게 있어서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자질은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경성사범학교 교사로 부임한 이후의 글들에서 더욱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그가 쓴 훈화는 대부분 수신과 위생을 중요시하며 아동의 규율적인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축사에 해당하는 글에서까지 ‘입을 벌리고 다니지 마라.’(12권1호, 1934.1)거나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알맞게 먹어라.’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웃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이겨내자’ ‘만사에 연구성을 가지고 틈을 타서 운동을 하라.’ ‘동무끼리 서로 칭찬하고 돕자’(12권3호, 1934.3.20)며 훈계하는 것을 보면 교육을 통해 아동의 신체와 정신을 개조하려는 그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3) 일상과 신념의 갈등 속 색동회의 의미

이 시기에 조재호가 『조선의 교육연구』에도 다양한 글을 게재하고 있었음을 되짚어 생각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위 [표1] [표2]의 목록 중 음영 표시한 글은 『조선의 교육연구』와 『어린이』에 유사한 형태의 글로 게재된 것이다. 가령 『조선의 교육연구』에 실린 「夏休みらしく生活しめよ」(제3호, 1928. 8), 「夏休に於ける兒童の生活指導」(제2권4호, 1929. 7)는 비슷한 시기 『어린이』 제7권6호(1929. 7. 20)에 실린 「방학 중의 시간생활」이라는 글과 맥락적으로 이어져있다. 전자가 여름방학 동안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룬 내용이라면, 후자는 어린이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여름방학 시간표를 작성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조재호가 당시 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방법론을 가져다가 『어린이』에 실천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짐작하게 한다. 다음은 「방학 중의 시간생활」 중 일부이다.

아침

6시. 기상…근처 좋은 산으로 올라가 산상에서 심호흡…그리고 가까운 강으로 가서 세수와 냉수마찰.

7시. 과제와 보습시작.

8시. 조반.

9시.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논(畓)으로 밭(田)으로 식물채집-고기 잡기  
고기 낚기 빨기 해엄치기 지심 매기 일하기.

12시. 부터 오후 3시까지 근처 나무 그늘에서 동무들과 이야기하기 유희하기  
(오후 한 시에 점심)

오후…

3시. 다시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논으로 밭으로.

5시. 목욕 수영.

6시. 저녁밥.

7시. 밤놀이…이야기와 유희.

8시. 과제와 보습.

9시. 오늘 하루 재미있게 지나간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운 내일을 기다리면서 자겠다.<sup>49)</sup>

이 글에서 조재호는 여름방학 중 소홀해지기 쉬운 위생과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름방학에 지킬 것 여섯 가지’와 ‘여름일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시한 일과표는 아동의 성장에 대한 조재호의 교육철학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오전 6시에 기상해 오후 9시에 취침하는 것으로 계획된 아동의 일과는 생각과 달리 다소 느슨해 보인다. 그 이유는 오전 7시와 오후 8시에 수행해야 할 학습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연에서 뛰어놀기가 대부분의 일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각각 오전과 오후시간을 마무리하는 정오와 9시에 잡힌 일정은 동무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루를 돌아보는 정서적 고양을 돕는 활동으로 더욱 눈길이 간다. 이를 통해 보건데 조재호가 아동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둔 사항이 아동 심신(心身)의 균형 잡힌 성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에서는 썩썩한 기상과 튼튼한 신체, 동무들과의 시간 또는 홀로 갖는 사색의 시간을 통해서는 마음의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루 일과를 안배하고 있는 것이다.<sup>50)</sup>

그런데 조재호가 『어린이』에서 보인 아동의 성장에 대한 신념은 『조선의 교육연구』에서 강조한 교육지향과는 분명히 달랐다. 조재호는 여름방학 생활지도를 전달하는 글인 「夏休みらしく生活しめよ」에서 “요컨대 여름방학은 학교생활의 그대로의 연장이 아니라 수련생활의 기회이다. 자유롭게, 개성, 체질, 환경에 맞는 흥미보다 작업에, 작업보다 연구로, 수양단련으로 건강하게 생활시키고 싶다.”고 말하며<sup>51)</sup> 여름방학이 아동에게 수양단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자못 엄격한 교육자의 태도를 보인다. 글 하단에는 모범적인 여름방학시간표의 예시로 한 학생의 하루 일과표가 제시되고 있는데, 아

49) 조재호, 「유익한 이야기 방학 중의 시간생활」, 『어린이』 제7권 6호, 1929.7·8, 2~3쪽.

50) 김윤정, 「『어린이』에 나타난 아동의 신체 인식과 형상화 방식」, 인하대 박사학위, 2023, 61~63쪽.

51) 조재호, 「夏休みらしく生活しめよ」, 『조선의 교육연구』 제3호, 1928.8, 34쪽.

래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 내용은 신체단련과 학습, 구락부와 같은 조직 활동 위주로 단조롭게 구성되어 있다. 이는 위 『어린이』의 글에서 보이던 것과는 다른 교육적 지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일제의 공교육에서 강조되던 규율적 생활교육을 『어린이』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아동을 위한 맞춤 내용으로 새롭게 구성했음을 알려 준다. 더불어 그 지향이 아동의 전인적·인격적인 성장을 중요시여긴 『어린이』의 방향성에도 일치한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이는 조재호가 색동회와 『어린이』를 배경으로 하여 관비유학을 통해 얻은 교육자로서의 지위와 지식을 조선의 아동을 위해 사용하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표3] 여름방학 모범시간표

七二四		七二五		七二六		七二七		七二八		月日
圖畫(レノヤ)	課頭帳	體操(レイス)	理科(復習)	體操(ラヂオ)	體操(ラヂオ)	體操(ラヂオ)	體操(ラヂオ)	算術(十四行)	算術(十四行)	夏休中の計劃
分	三十分	間	時	間	時	間	時	間	時	夏休中の計劃
フリンボ	三十分	間	時	間	時	間	時	間	時	夏休中の計劃
少年俱樂部	三十分	間	時	間	時	間	時	間	時	夏休中の計劃
二時	二時	ナ	ナ	ナ	ナ	ナ	ナ	ナ	ナ	夏休中の計劃

慶南釜山普 四年 金載坤  
 いよく近づいた、うれしい夏休、昨年はきまりの無い、夏休をして、中耳炎や腹をこはして、つまらなかつた。  
 今年はまず健康を中心にして、きまりのある夏休にしたいと思つて、次のような計劃を立て、見は。

당시 조재호의 행보는 일제의 공교육 종사자라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과 조국의 미래를 건 어린이문화운동이라는 신념의 영역에 걸쳐있었다. 조재호는 조선총독부의 관비유학생 출신이면서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안고 살아야만 했던 조선인이었다. 또 일제의 식민지 교육을 충실히 수행하는 교육자인 한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문화운동에 뛰어든 색동회 동인이기도 했다. 이렇게 엇갈리는 정체성은 친일과 저항으로 구분되는 판단의 영역에 세우려는 현재의 욕망과 달리 당시 그에게는 불가불 갈등 인자로 작용

했을 것이다.

조재호가 친일과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색동회 동인들과 쌓은 두터운 동지 의식 때문이라 짐작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조재호는 색동회의 이름을 내세운 모든 활동에 빠짐 없이 참여한다. 출세지향적인 조재호의 입장에서 색동회 활동은 그다지도 움이 되지 않는 이력이었다. 그럼에도 색동회 활동을 이어나간 것은 빼앗긴 조국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고 어린이문화운동에 열정을 쏟던 그 순수한 시기를 함께 했던 동지들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보인다. 조재호가 색동회 동인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긴 사실은 이 시기 그의 집필 내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조선의 교육연구』가 아닌 외부 잡지에 글을 많이 게재하지 않는 필자였다. 아동 관련 글을 게재한 지면은 『어린이』가 유일하며, 기타의 글들도 방정환을 통해 연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천도교 계열 잡지인 『별건곤』 『학생』 『신여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조재호에게 있어서 색동회는 그 시절 순수했던 신념의 상징이요, 색동회 동인들은 친일과 가까운 자리에서 기우뚱하게 서있는 자신을 다잡는 존재들이었을 것이다. 조재호는 입신출세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지사가 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색동회 동인로서의 자리는 저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시기 동안 그 마음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 조선총독부 산하기관의 직원으로서 입신출세가 점점 명약관화해지는 것과 달리 색동회는 방정환 사후 구심점을 잃고 점차 와해되고 있었다. 따라서 일상과 신념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달리 말해 그만큼 자기기만의 상태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말이기 하다.<sup>52)</sup>

52) 본고는 '일상과 신념의 갈등'을 주목하면서도 조재호의 자기기만 여부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확보한 자료의 한계로 그에 대한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5. 부역: 충실한 조선총독부 학무국시학관

조재호는 일제의 침략전쟁이 격화되던 1940년 5월에 조선총독부 학무국 시학관(1940.5~1944.4) 자리에 오른다. 일제강점기 시학관은 대표적인 식민지 교육행정관료로서 조선총독부가 교육현장을 직접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 시학관들은 주로 학교 현장을 시찰하면서 총독부의 시책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감독했는데, 무엇보다 교사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이념에 입각한 수업을 진행하는지 감찰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정책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들로 “거의 예외 없이 일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한 인물들”로 평가되고 있다.<sup>53)</sup> 조재호에게 있어서도 조선총독부 시학관 임용은 그가 민족을 등지고 일제에 부역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군수공업총동원법을 제정하며 총동원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40년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을 결성하여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또 1941년 3월 31에는 국민학교규정을 공포해 학교를 예비병력 양성을 위한 연성소로 활용하고자 했다. 일제의 국민학교제 시행은 황국의 국민으로 승격이라는 미명 아래 조선 아동으로 하여금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건설을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세뇌하는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했다.<sup>54)</sup>

[표4] 조재호의 친일 문건 목록

년월	발표지면	제목
1940.9.2.~3.	매일신보	내선일체와 의무교육의 의의 <sup>55)</sup>
1941.3.	『춘추』 3월호	국민학교 개설과 그 사령(使令)
1941.4.	『삼천리』 제13권4호	총독부고등관 제씨가 전시하 조선민중에 전하는 서, 국민학교제도와 학생문제

53) 이기훈, 「식민지 교육행정과 조선인 교육관료」, 『이화사학연구』 36권, 이화사학연구소, 2008.6, 20~22쪽.

54) 이명화, 「일제 황민화교육과 국민학교제의 시행」,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5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322~328쪽.

1941. 4. 8. ~11.	매일신보	새로된 국민학교 이런 일반지식은 준비합시다 1~4
1941. 5.	『반도의 빛』 5월호	국민학교의 교육방침
1941. 7. 1.	『삼천리』 제13권7호	제만조선인의 금후교육, 제만조선인 교육문제를 위한 시찰단기
1944. 5. 15.	매일신보	죽음과 바꾸는 것 책임은 인격평가의 기준

[표5] 라디오방송 출연 목록(1937년 이후)

계재일	계재지면	기사제목	방송제목
1937. 4. 1.	조선신문	JODK JBAK JBBK 방송번조	제2방송)오전6시 お話
1937. 4. 1.	경성일보	今日のプロ	제2방송)오후6시 お話
1938. 5. 6.	경성일보	ラヂオ	제2방송) 오후 7시30분 講演
1938. 5. 7.	조선신문	今晚の放送	7시30분 講演
1938. 10. 1.	경성일보	ラヂオ	제2방송)오후6시 月例訓話
1939. 3. 6.	경성일보	ラヂオ, 六日(月)	제2방송) 오후6시30분 講演
1939. 5. 3.	경성일보	DK 라ヂオ, 三日(水)	제2방송)오후7시30분 兒童の性向善導
1940. 8. 1.	조선신문	ラヂオ, 一日(木曜日)	제2방송)오후6시30분 月例訓話 여름에 鍛鍊합시다 (제목은 동아일보 1940. 7. 28. 자에서 확인)
1940. 10. 2.	경성일보	DK 라ヂオ, 二日(水)	제2방송)오후8시 講演 始政三十年を蹟みて(1)教育
1940. 10. 24.	경성일보	DK 라ヂオ, 廿四日(木)	제2방송)오후8시 講演 朝鮮義務教育の將來
1940. 10. 25.	조선신문	今晚の放送	오후8시 講演
1940. 12. 17.	조선신문	ラヂオ, 十二月十七日【火曜日】	제2방송)오후8시 講演 紀元二千六百年回顧
1941. 3. 5.	경성일보	DK 라ヂオ, 五日(水)	제1방송)오후3시30분 (城) 教師の時間 『國民學校講座』(6) 國民學校藝能科に就て(上)
1941. 3. 7.	경성일보	DK 라ヂオ, 七日(金)	제1방송)오후3시30분 (城) 教師の時間 『國民學校講座』(7) 國民學校藝能科について(下)
1941. 7. 1	경성일보	DK 라ヂオ, 一日(火)	제2방송)오후6시20분 お話 『頼母しい小國民』
1941. 7. 2.	조선신문	今晚の放送	오후6시20분 お話『頼母しい小國民』

55) 1930년대 말부터 40년대 초에는 황국신민화 정책과 맞물려 일제는 국민학교의 의무교육제도를 계획했지만,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의 열세와 패전으로 인해 결국 실행되지는 못했다. 이명화, 위의 글, 321쪽.

1942. 1. 4.	조선신문	라디오, 一月四日(日曜日)	제2방송)오후7시30분 大戦下新年展望(三) 數育
1942. 4. 3.	경성일보	라디오, 三日	제2방송)오후9시40분 講話
1942. 8. 17.	매일신보	라디오-八月十七日 라디오	오전9시30분 (城)戰時 家庭の時間(朝鮮語) 新卒生の親に望む
1942. 10. 24.	매일신보	라디오	오후6시30분 (城)教育勸語の御精神(朝鮮語)
1943. 2. 11.	매일신보	라디오 - 二月十一日 (木曜日)	오전8시30분 (城)紀元節に當りて神代の古事を偲ぶ(朝鮮語)
1943. 4. 24.	경성일보	라디오, 24日	오전9시30분 (城)海ゆかばみたまわれの解説
1943. 9. 15.	경성일보	라디오, 15日	오후9시 座談會(鮮語) 『學徒の勤勞と決戰意識を語る』
1943. 10. 26.	경성일보	라디오, 26日	오후6시30분 半島學徒の戰時動員について(鮮語)
1943. 11. 10.	매일신보	라디오	오후7시20분 皇國教學の本義와 學徒의 使命 朝鮮總督府學務局長 大野謙一 (翻譯) 夏山在浩
1943. 11. 11.	매일신보	라디오, 十一月十一日(木曜日)	오후7시20분 皇國教學の本義와 學徒의 使命 朝鮮總督府學務局長 大野謙一 (翻譯) 夏山在浩
1943. 11. 30.	매일신보	라디오	제2방송)오후7시20분 顧みはせじの精神
1943. 12. 1.	경성일보	라디오, 1日	제2방송)오후7시20분 顧みはせじの精神
1944. 1. 26.	경성일보	라디오, 26日	제2방송)오후7시20분 大君の御楯とは
1944. 2. 20.	경성일보	라디오, 20日	제2방송)오후7시20분 諸學校の整理統合について
1944. 2. 28.	경성일보	라디오, 28日	제2방송)오후7시20분 子女の獨學及び就職問題
1944. 9. 6.	경성일보	放送, 6日	제2방송)오후7시20분 亡史に見る國民の戰意
1944. 10. 6.	경성일보	放送, 6日	제2방송)오후7시30분 軍人援護に拜る大御心

[표4]는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조재호가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한 글의 목록이다. 대부분의 글이 그가 시학관에 오른 1940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국민학교제 시행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독부고등관 제씨가 전시 하 조선민중에 전하는 서, 국민학교제도와 학생문제」(『삼천리』 제13권 7호, 1941. 4)는 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글이다.

이 글에서 조재호는 국민학교제로의 개편 목적이 “황국의 도에 귀일시켜서 충량한 황국신민을 연성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조선인 학생들에게는 “내선일체의 기치 하에서 조선인학생들이 황도정신을 확호히 파악해야 할 것”과 “팔굉일우의 대이상과 일본정신을 사상의 핵심으로 하여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수양에 노력”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내선일체는 조선을 강제로 일본에 동화시키는 방식으로 조선 문화를 말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팔굉일우(八紘一宇)는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위해 조선의 아동청소년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명분으로 사용되었다. [표5]는 조재호가 출연한 라디오방송 목록이다. 그 실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제목만으로도 위 글과 논조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거의 비슷한 시기인 1941년 2월에 조재호는 경성동극회(京城童劇會)의 창립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경성동극회는 1941년 2월 11일 오후 2시, 부민관 소강당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그 창립 취지에 대해서는 “신체제하의 소국민문화운동으로서 아동예술의 순화와 진흥을 기하며 아울러 국어의 진흥 내선일체의 구현을 힘쓰는 건전한 동극을 수립코져 이번 경성동극회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말하며,<sup>56)</sup> 덧붙여 “일본정신의 진의에 입각한 아동예술교화”<sup>57)</sup>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경성동극회의 창립을 알리는 2월 11일자 신문기사에서는 특히 발기인과 창립고문을 별도로 알리고 있는데, 조재호는 창씨명인 하산재호(夏山在浩)로 창립고문 명단의 첫 자리에 올라있다. 2월 16일자 기사에서는 경성동극회 창립식의 진행 순서와 내용, 조직 및 사업내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매우 익숙한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색동회 동인인 진장섭이다. 창립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되는 한편 내빈 축하까지 맡은 것으로 보아 진장섭은 경성동극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재호와 진장섭은 유학생활을 함께한 친구이자, 재일본 조선교육연구회와 색동

56) 「경성동극회 창립」, 『매일신보』, 1941년 2월 11일. 경성동극회는 현재까지 친일 아동극 단체로서 그 존재만 알려진 상태였다. 본 연구에서 발굴한 자료는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경성동극회의 실체를 밝히는 한편 일제 말 아동문학과 친일의 역사라는 새로운 연구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57) 「경성동극회 창립」, 『매일신보』, 1941년 2월 16일.

회 활동을 같이한 동지로서 각별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1941년에 이르러 경성동극회의 창립과 관련된 기사에서 이름이 나란히 놓여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위 기사의 내용을 참고해보면 경성동극회는 여러 사람이 참여한 규모 있는 단체였음을 알 수 있다. 경성동극회는 하부 조직으로 기획부, 교육부, 문예부, 연출부, 미술부, 음악부, 무용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는 동극 공연의 특성이 반영된 조직 구성이라 볼 수 있다. 또 사업내용으로는 매월 1회의 정례회의, 강연회 및 강습회, 공연, 방송, 회보 발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다. 현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경성동극회가 창립된 해에 제1회 공연을 진행했다는 사실뿐이다.

경성동극회는 제15회 아동애호주간인 1941년 5월 5~6일, 이틀 동안 부민관에서 제1회 공연을 열었다. 당시 공연한 작품은 노양근의 작품 『열세 동무』를 각색한 <소년 애국반><sup>58)</sup>과 시노부(흑전시노부, 黒田シノブ, 구로다 시노부)<sup>59)</sup> 원작·각색의 <子福한 시루소, 子寶ミルコ>였다.<sup>60)</sup> 1941년 5월 7일에는 경성동극회가 상연한 연극을 관람한 관극기가 기사에 오르는데, 특히 아동극과 동화·동요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협력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아동극을 발전시킬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는 말은 당시 아동문학계의 친

58) <소년 애국반>은 <어린이 애국반>으로도 표기하고 있다. 「경성동극회」에서 제일회 공연 관극기, 『매일신보』, 1941년 5월 7일; 「동심천국의 무대 경성동극회 제1회 공연」, 『매일신보』, 1941년 5월 3일; 연극의 구성에 대해서는 「경성동극회」에서 제일회 공연 관극기, 『매일신보』, 1941년 5월 7일.

59) 구로다 시노부(黒田しのぶ)의 본명은 츠카타 미즈에(塚田満江, 1918~2020). 일본의 근대문학 연구자. 조선 경성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사 재직. 일본 귀국 후에는 교토여자대학교 교수 역임. <<https://ja.wikipedia.org/wiki/%E5%A1%9A%E7%94%B0%E6%BA%80%E6%B1%9F>>(2024. 11. 12.)

<子福한 시루소>는 경성일보 현상소설에 당선된 작품으로 파악되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음. 国立国会図書館, <<https://ndlsearch.ndl.go.jp/en/search?cs=bib&display=panel&from=0&size=20&keyword=%E5%AD%90%E5%AE%9D+%E9%BB%92%E7%94%B0%E3%81%97%E3%81%AE%E3%81%B6&f-ht=ndl>>(2024. 11. 12) <子福한 시루소> 공연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작 및 각본: 흑전시노부, 구성: 4막, 연출: 삼길명(三吉明), 장치: 암본정이(岩本正二), 무대감독: 궁촌경작(宮村慶作). 「동심천국의 무대 경성동극회 제1회 공연」, 『매일신보』, 1941년 5월 3일; 연극의 구성에 대해서는 「경성동극회」에서 제일회 공연 관극기, 『매일신보』, 1941년 5월 7일.

60) 「경성동극회」에서 제1회 공연, 『매일신보』, 1941년 3월 9일; 「경성동극회」에서 제일회 공연준비, 『매일신보』, 1941년 4월 21일; 「동심천국의 무대 경성동극회 제1회 공연」, 『매일신보』, 1941년 5월 3일.

일협력 관계를 시사한다.<sup>61)</sup> 경성동극회는 조선사회사업협회와 국민총력 조선연맹 문화부의 후원을 받은 사업이었다.<sup>62)</sup> 이 사실은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조재호와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진장섭 사이에 모종의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고문이 그저 이름만을 올리는 자리라고는 하나, 그가 조선총독부의 고위 교육관료라면 그 이름만으로도 실질적 실행사가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sup>63)</sup>

김재용은 친일문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먼저 친일문학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친일문학은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대동아공영권의 전쟁 동원과 내선일체의 황국신민화를 담아낸 글들이요, 그러한 작품을 쓴 이들이 친일문학가라는 것이다.<sup>64)</sup> 중일전쟁 이후 조재호가 남긴 글과 그의 행적은 이러한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문학작품이 아니라고 해서 이 기준이 무력화 될 이유는 없으니, 2009년 민족문제 연구소는 『친일 인명사전』 교육 부문에 조재호를 친일인사로 등재한다.<sup>65)</sup>

일제 말 친일로 돌아선 지식인들은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길을 선택한 것이었으며 그에 대한 내적논리도 가지고 있었다. 1938년 10월 일본이 중국의 무한 삼진을 함락한 것과 1940년 독일군에 의한 파리 함락은 다수의 지식인들을 자발적 친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지식인들은 일본이 동아시아의 패권자가 되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한편 근대 서구가 몰락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도하게 된다. 독립의 불가능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일제가 제기한 대동아공영권이야말로 서구 중심의 근대를 넘어 동양 중심의 새로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sup>66)</sup> 조재호에게도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그로인한 세계 질서의 변

61) 「『경성동극회』에서 제1회 공연 관극기」, 『매일신보』, 1941년 5월 7일.

62) 「『경성동극회』에서 제1회 공연준비」, 『매일신보』, 1941년 4월 21일.

63) 실제 라디오프로그램을 보면 조재호의 라디오방송출연 시간과 동경방송 어린이회의 아동극 〈소년 애국반〉이 앞뒤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Kラジオ, 一日(火)」, 『경성일보』, 1941년 7월 1일. 제2방송 오후6시 兒童劇『少年愛國班』(4) 東京放送コードモ會; 오후6시20분 お話『頼母しい小國民』 夏山在浩

64)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58-59쪽.

65) 민족문제 연구소, 『친일 인명사전3』, 2009, 589-590쪽.

66) 김재용, 앞의 책, 3-4쪽.

화는 대동아공영권으로의 편입을 통해 식민지적 근대의 초극을 꿈꾸게 할 수 있다. 더구나 조재호는 조선총독부의 교육관료로서 일본의 제국주의 논리를 설파해왔던 터이니 일제가 보여주는 가시적 성과에 누구보다 몰입했을 공산이 크다.

조국과 아동에 대해 가졌던 신념을 지탱해주던 색동회가 유명무실해진 것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다. 방정환 사후 색동회는 사실상 구심점을 잃었으며, 함께 힘을 모았던 경성보육학교 활동도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색동회 동인들도 하나둘 친일협력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특히 조재호와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던 진장섭과 윤극영의 친일협력은 친일의 정당성에 대한 심리적 납득을 도왔을 가능성이 크다.<sup>67)</sup> 조재호에게 있어서 색동회는 친일적인 일상의 영역에 맞서 조국을 향한 신념을 영역을 지탱해주는 심리적 저지선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색동회가 점차 무력화되고 친일협력으로 돌아서는 동지들이 생겨나면서 늘 자기기만의 위치에 봉착해있던 신념의 영역은 쉽사리 붕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일상과 신념의 영역이 불일치함으로써 발생하던 내면의 갈등상황이 종료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국에 대한 신념이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신념으로 대체되면서 마침내 일상과 신념의 영역이 일치되자 조재호는 더 이상 출세와 동지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 없이 친일협력의 길로 나아간다.

## 6. 글을 마무리하며

조재호는 1941년 5월에 총독부관계관교육시찰단의 일원이 되어 만주일대를 시찰했다.<sup>68)</sup> 이때 조재호는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당시 간도에

67) 고한승은 1941년 일본 육군과 해군에 비행기를 헌납하기 위한 운동에서 실행위원을 맡음. 정인섭은 1939년 10월 조선문인보국회 발기인과 간사 활동, 국민문학론 관련 글 발표 등 다수의 친일행적을 보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윤극영은 간도 용정에서 친일단체인 오죽협화회에 가입한 것으로 친일행적을 의심받고 있음.

68) 「재만조선인의 금후교육, 재만조선인 교육문제를 위한 시찰단기」, 『삼천리』 제13권 7호, 1941. 7. 1.

머무르고 있던 윤극영을 찾아간다. 윤극영은 감격에 마지않으며 『양헌집』에서 그 당시의 일을 회상하고 있다.<sup>69)</sup> 진장섭과도 앞서 확인했듯 경성동국회의 일원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여전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민족을 위한 신념으로 연결되어 있던 그들의 동지적 관계는 뒤바뀐 신념에서 서로 동조함으로써 오히려 더 공고해졌을 수 있다. 따라서 색동회가 아동문학의 형성에 기여한 바와 더불어 일제 말 색동회의 굴절 또한 직면해야 할 아동문학사의 사건임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입신출세와 색동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해방 전까지 조재호의 삶을 전기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재호는 아동교육 전문가로서 색동회에 참여하며 초창기 아동문학과 어린이문화운동의 내용을 완성하는 데 일조했다. 따라서 그의 삶에 대한 전기적 연구를 시도한 본 연구는 조재호 개인의 작가론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동문학과 어린이문화운동의 전개에 있어서 색동회의 역할을 환기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색동회와의 관계 속에서 접근하다보니 조재호가 남긴 교육자로서의 이력에 대한 조명은 부족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조재호가 지닌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은 본 연구에서 시도한 친일의 내적논리를 더욱 치밀하게 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서 추후 연구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다. 또 해방 후 조재호의 행보에서도 입신출세와 색동회는 여전히 유효한 키워드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재호는 해방 후 재건된 색동회에서 방정환을 잇는 2대 회장으로 추대 받는다. 이 과정에서 색동회에 내포된 민족이라는 기의는 그의 친일협력을 탈색시키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공산이 크다. 이는 일제 말 친일협력으로 돌아선 여타의 색동회 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색동회 동인들의 친일문학과 해방 후 색동회 재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또한 추후 과제로 남겨두겠다.

69) 윤극영, 「友情에 부친다」, 조재호, 『양헌집』, 서울교육대학, 1968, 25~26쪽.

## ■ 참고문헌

### 1. 잡지 및 신문

『어린이』 『경성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신문』 『삼천리』 『조선일보』

### 2. 논문 및 평론

김광규, 「일제하 고등사범학교 유학생의 구성과 교직 진출」, 『역사연구』 제47호, 역사학연구소, 2023.5, 215~259쪽.

김봉석, 『『朝鮮の教育研究』를 통해 본 일제시대 초등역사수업의 실제 양상』, 『사회과학교육연구』 제19권 제2호, 사회과학교육학회, 2012, 1~18쪽.

김성학, 「일제시대 해외유학생 집단의 교육연구활동과 서구교육학 도입」, 『교육학연구』 제34권 5호, 교육학연구학회, 1996, 1~24쪽.

김윤정, 『『어린이』에 나타난 아동의 신체 인식과 형상화 방식』, 인하대 박사학위, 2023.

박길수, 「어린이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소고 - 색동회 창립 동인 강영호 · 조재호를 중심으로」, 제96회 어린이날 기념 색동학술포럼 자료집, 방정환연구소, 2018.5, 56~73쪽.

손증상, 「전조선소년지도자대회와 『어린이』 기념호 발행에 대한 연구 - 색동회와 『어린이』의 미디어 의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 제97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24, 369~407쪽.

이기훈, 「식민지의 교육행정과 조선인 교육관료」, 『이화사학연구』 36권, 이화사학연구소, 2008.6, 1~34쪽.

이명화, 「일제 황민화교육과 국민학교제의 시행」,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5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315~348쪽.

장인모, 「1920년대 재일본조선교육연구회의 활동과 교육 논의」, 『한국교육사학』 제36권 제2호, 한국교육사학회, 2014.6, 31~66쪽.

조은숙, 「세계아동예술전람회(1928)를 통해 본 아동예술의 이념과 세계 표상의 기획」, 『인문사회21』 제7권 6호, 인문사회21, 2016, 715~736쪽.

조재호, 「교육정신 40년: 갈채 속의 이력서」, 『세대』 제6권 통권 58호, 세대사, 1968.5, 271~276쪽.

한금희,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과 국민총력 조선연맹」, 『민족문제연구』 10권, 민족문제연구소, 1996.1, 38~41쪽.

### 3. 단행본

김성학, 『서구교육학 도입의 기원과 전개』, 문음사, 1996, 226쪽.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노진호, 『존 듀이의 교육이론: 반성적 사고와 교육』, 문음사, 1996.

이동초 글 · 개벽라키비움 동학천도교인명사전연구회 기획, 『동학천도교인명사전』 제2판, 모시는사람들, 2019.

이헌구, 『미명을 가는 길손』, 서문당, 1973.

정미량, 『1920년대 재일조선유학생의 문화운동: 개인과 민족, 그 융합과 분열의 경계』, 지식산업사, 2012.

정인섭, 『색동회 어린이 운동사』, 증보판, 휘문출판사, 1981.

정중현, 『제국대학의 조센징』, 휴머니스트, 2019.

조재호, 『양헌집』, 서울교육대학, 1968.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I』, 도서출판 선인, 2007.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 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존 듀이, 『민주주의와 교육/철학의 개조』, 김성숙 · 이귀학 옮김, 동서문화사, 1980.

#### 4. 기타

『조선총독부관보』, 제924호부록, 1930.2.3.

<[http://viewer.nl.go.kr:8080/gwanbo/viewer.jsp?pageld=GB\\_19300203\\_CC0001\\_001#](http://viewer.nl.go.kr:8080/gwanbo/viewer.jsp?pageld=GB_19300203_CC0001_001#)>

(2024.10.8)

e-gov 法令検索. <<https://laws.e-gov.go.jp/law/303IO0000000188>> (2024.11.11.)

<<https://ja.wikipedia.org/wiki/%E5%A1%9A%E7%94%B0%E6%BA%80%E6%B1%9F>> (2024.11.12)

国立国会図書館,

<<https://ndlsearch.ndl.go.jp/en/search?cs=bib&display=panel&from=0&size=20&keyword=%E5%AD%90%E5%AE%9D+%E9%BB%92%E7%94%B0%E3%81%97%E3%81%AE%E3>

%81%B6&fht=ndl> (2024.11.12)

## Cho, Jae-ho's self-divisive code : 'Rise to Fame' and 'Saekdonghoe'

Based on his activities before liberation

Kim, Yoon-jung\*

Cho, Jae-ho, a founding member of Saekdonghoe, served as a children's cultural activist and rose to the top educational official posi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called the Hakmu State Examination Center. Cho, Jae-ho came to Seoul from his hometown of Uiryong in 1916 and entered Gyeongseong Jeil High School, and graduated as a senior in 1921 and was selected as a government-funded student. After entering Tokyo Normal School in April 1922, he organized the Joseo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with Jin Jang-seop and others to dream of reforming the education of children in Joseon and participated as a driving force for Saekdonghoe as a practical method. However, the status of government-funded student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cts as a conflict factor between the nation and its success.

Cho, Jae-ho, who returned to Korea in 1926, worked as a teacher at Gyeongseong Normal School and Gyeongseong Girls' Normal School, accumulated his career toward entering the profession, and participated in activities of Saekdonghoe to support children's cultural movements. This period, when the realm of daily life as a professional and the realm of belief as a driver of Saekdonghoe were compatible, seems to be a period when

---

\* Inha University/lecturer

self-divisive conflict in his life was heightened. However, this conflict is resolved in 1940 when he assumed the position of the Crane State Examination Officer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Cho, Jae-ho, who became the Crane State Examination Officer, took the lead in promoting the Japanese national school system that brainwashed the Greater Asia Public Interest and the new nationalization. Since the Saekdonghoe, which occupied the realm of belief, has already become powerless, the faded place of the nation is easily replaced by Japanese imperialism. When everyday life and beliefs are integrated like this, he enters a path for more active pro-Japanese cooperation.

**Key words** : Cho, Jae-ho, self-division, rise to fame, Saekdonghoe, U-rin-i, Daily Life, Belief, Pro-Japanese Cooperation